



추부공소(금산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3년

## 연중 제29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 2024년 10월 20일(나해)

**제1독서** 이사 2,1-5

앞에서 환성 올려라. ◎

**화답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대전 고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성모여고 강당

공주·논산·세종 예비신학생 모임 모임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고등부 신학교 체험  
11월 2일(토)~3일(주일)  
대전가톨릭대학교



# 전교, 사랑과 자비의 사명



김인호 루카  
도룡동 주임

오늘 복음은 복음선포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소개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이 명령을 받은 최초의 사람들은 사도들이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주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 20).”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한 내용에 주목해 봅시다. 사도들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참 행복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역시 사도들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들, 음식을 함께 먹은 죄인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체험한 이들은 곧 이어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보존했고, 자신들이 체험한 신앙을 또 다른 이에게도 사도들의 방법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복음선포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소개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이 명령을 받은 최초의 사람들은 사도들이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2천 년의 복음 선포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말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의 삶이 자신을 통해 세상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살아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예제 47, 1-12 참조).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 주듯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하게 하는 극단적 양극화 사회를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삼포(연애, 결혼, 출산)시대’를 넘어 집, 희망, 인간관계, 꿈마저도 포기한 ‘칠포 시대’를 살고 있고 노인 빈곤률은 OECD 1위에 진입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교는 단순히 안 믿는 이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사명은 곧 ‘사랑과 자비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양극화와 젊은이와 노인의 고통, 분노 사회에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시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데 힘을 모읍시다.



바울이  
(1092)  
유판식 토마스



## 10대 청소년의 호소, “정신 좀 차립시다!”

지난달 7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UN 공식 기념일인 제5회 푸른 하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전에서는 907기후정의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진 도중에는 참가자들이 아스팔트에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와 함께 분필로 아스팔트에 자신의 생각을 쓰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분필 퍼포먼스에서 한 10대 청소년 참가자가 아스팔트 위에 노란 분필로 “정신 좀 차립시다!”라고 썼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 곳이 아려왔습니다. 아이들 눈에 기성세대들은 기후 재앙이 시작됐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2018년 당시 15세였던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폴란드 유엔기후정상회담에서 한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정치·경제·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때, 행동에 나설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미래세대로부터 온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부터 또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구는 2년 전 2040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함으로써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선언 이후 성당과 기관별로 다소 온도 차는 있지만 환경생태교육, 온실가스진단,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 인증성당이 나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 달 1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온실가스배출량이 4.4% 줄었습니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줄고 있는 것입니다. 907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청소년의 호소대로 정말 정신을 차리는 기성세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축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효능감도 생깁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 대열에 함께하면 속도도 빨라져 미래세대와 가난한 이들 그리고 창조주 하느님께 더 떳떳해질 것입니다.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 35.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줍기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어로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이 합쳐진 단어로 원래는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 즉 환경보호를 넘어서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줍깅”이라는 말로 뛰는 것보다는 줍는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줍다 보면 보람과 짜증, 그리고 많은 고민이 듭니다. 쓰레기를 줍고, ‘거리가 깨끗해졌으니 좋군.’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쓰레기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버려지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 치워지지 않은 원인을 생각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왜 누군가는 계속 버리고 누군가는 계속 줍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생각 없이 버리고 누군가는 생각 없이 줍다 보면 이 순환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 사회에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꿔나가는 데 함께합시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 16. 미사 중 “앉음”과 “장궤”에 대해서 미사 중 “앉음”과 “무릎 꿇음(장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편 “미사 중 일어섬의 의미”에 이어 오늘은 “앉음”과 “장궤”에 대한 의미를 계속 설명하고자 합니다.

○ **앉음** : 미사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앉는 자세는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안정된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기 위한 자세이며,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삶에 옮길 결심을 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사 중 앉는 것은 “편히 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정된 자세를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 **무릎 꿇음** :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때, 또는 무엇인가 간절히 애원할 일이 있을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울러 무릎 꿇는 자세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비를 바랄 때 사용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전례 안에서 무릎 꿇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는,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잘못과 약함을 인정하는 자세이며, 하느님께 간절히 무엇인가를 청하는 자세입니다. 현행 한국교회에서 성찬례 때 신자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성찬례 중에 무릎 꿇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질 파스카 신비의

재현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심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교회 성당에서 더 많은 교우분이 앉을 수 있도록, 또는 여타의 다른 이유로 장궤들이 없는 신자석을 사용함으로써 장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이와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자리는 신자들이 거룩한 전례에 몸과 마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해야 한다. 신자들의 자리에는 원칙적으로 장궤들이나 의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지정석은 두지 말아야 한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1항).”

미사를 봉헌하는 교우들의 자세로 일어섬, 앉음, 장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 중에 다른 동작과 자세는 분명 미사 거행의 신비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통일된 자세는 거룩한 미사에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이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각을 표현하고 길러주는 역할(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2항 참조)임을 기억하며 미사에서 행해지는 동작에 적극적으로 임해 보았으면 합니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환자경험평가 대전종합병원 1위·중부권 2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제4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대전지역 종합병원 1위·중부권 2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진행된 4차 환자경험평가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웹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 보장 △전반적 평가 등 6개 항목이며, 대전성모병원은 종합점수 88.49점으로 종합병원 평균(81.28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전국 329개 종합병원 중 20위의 쾌거다.

특히 환자 존중·예의, 경청, 병원 생활 설명, 담당 의사의 회진시간 또는 회진시간 변경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간호사, 의사 영역이 지난 평가 대비 높이 향상된 것을 비롯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교구알림**

**위령미사 안내**

- 때·곳 : 11.2(토) 11:00, 산내공원묘원  
- 주례 : 교구장 김중수(아우구스티노) 주교
- 때·곳 : 11.2(토) 11:00, 성환공원묘원  
- 주례 : 총대리 한정현(스테파노) 주교
- 공원묘원 내 조화사용을 금지합니다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10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 : 10.22(화) 19:30
- 곳 : 가수원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전담사목**

**대전 ME 제11차 쇄신주말**

- 때 : 11.23(토) 14:00~24(주일) 17:00 파견미사
- 곳 : 해미 웨이크업 국제청소년센터
- 자격 : ME 주말을 경험 후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부부
- 참가비 : 부부당 23만원
- 문의·신청 : 주말후분과 김병권(루도비코) 김현(루도비카) 부부 010-2960-4010, 010-2026-2010
- 인터넷 검색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국립대전현충원 위령의 날 미사**

- 때 : 11.2(토) 10:00 연도 후 미사
- 곳 : 보훈공원 / 문의 : 010-8875-2349
- 준비물 : 돗자리, 봉헌금, 모자

**제 4차 교구 치유목상회**

- 때·곳 : 11.23(토)~24(주일), 새얼센터
- 참가비 : 10만원(비수박), 12만원(숙박) / 성령목상회 이수자
- 접수 : 선착순 60명 마감(숙박 40명 선착순)
- 방문 및 팩스/e-mail접수(www.crs.or.kr)
- 계좌 : 농협 351-1272-6090-539 (천주교대전교구성령쇄신봉사회)
- 문의 : 교구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본당**

**용전동성당 설립 40주년 기념**

**대전가톨릭남성합창단 AMOR 정기연주회**

- 연주곡 : MASS in honor of St.CAECILIA 외
- 때 : 11.9(토) 17:30
- 곳 : 용전동성당 대성전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장례지도사교육원 신입생 모집**

- 기간 : 11.22(금), 17:00까지
- 과정 : 교리신학원, 교리신학원 심화과정, 전례음악원, 전례꽃꽂이, 전례꽃꽂이 심화과정, 장례지도사교육원
- 면접 : 11월 23일(토),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
- 문의 : (044)861-7230 각 과정별 소개와 제출서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 요청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 생활 가능
- 간호·간병·조리 인력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대전가톨릭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무료상담**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 상담방법 : 내방, 전화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2036, 624-3288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대덕구 오정동)
- 문의 : (042)622-7018

**대전평화방송 아도르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

- 대상 : 만55세 이상 남녀 가톨릭신자
- 연습 : 매주 (월) 1부 10:30, 2부 19:30
- 곳 : 선화동성당
- 문의 : 010-7933-8248

**교회운동 및 인준단체**

**천주교대전교구합창단**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대전 가톨릭성서모임 성서그룹공부 연수**

- 제104차 탈출기 : 11.9(금)~11(주일) 09:30~15:30
- 제105차 마르코 : 11.16(토)~17(주일) 09:30~15:30
- 제106차 창세기 : 11.23(토)~24(주일) 09:30~15:30
- 대상 : 각 그룹공부 이수한 사람
- 곳 : 가톨릭문화회관(온라인 동시 병행)
- 연수비 : 5만원 / 문의 : 010-4228-0470

**파티마 세계사도직 (셀)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11.2(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3450-6533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10월 월례회**

- 때·곳 : 10.28(월) 14:00~16:00, 대전교구청 명례방
- 내용 : 전례특강미사
- 작품발표 : 모든 성인 대축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판매용 대립환
- 문의 : 010-4171-9145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곳	내용 / 대상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 미사	10.23(수) 10:00, 모산성당 10.25(금) 10:00, 천안용곡동성당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10.24(목) 10:00, 천안신부동성당	
제58차 아버지학교	11.2(토) 09:00~3(주일) 17:00 수리치골 성모성지	대상 : 모든 아버지 수강료 : 14만원
제15차 약혼자주말	11.8(금) 19:00~10(주일) 17:00 해미 웨이크업센터	대상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혼인 2년 미만 신혼부부 수강료 : 14만원
가정신앙강좌 : 우리들의 블루스	11.15(금) 19:00~21:00, 교구청 명례방	주제 : 오늘 (오직 · 늘 산다) 참가비 무료 (개인텀블러 준비)
혼인교리	11.2(토) 비대면	대상 :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p><b>이화병원</b></p> <p>이중민(카타리나) 김지연(아네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 영상진단센터/ 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정형외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p>	<p><b>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b></p> <p>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p>	<p><b>모두의 안과</b></p> <p>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p>
<p><b>연세내과</b></p> <p>(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p>	<p><b>대전성모안과</b></p> <p>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p>	<p><b>이안과병원</b></p> <p>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어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p>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AuthenticMovement를 통한 진정한 내면의 소리듣기 동작치료 워크샵**

- '몸-마음-영성의 통합과 치유'
- 때 : 11.9(토) 14:30~17:30
- 곳 : 가톨릭문화회관 401호(대흥동성당)
- 문의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 때 : (2차) 11.2(토) 14:00
- 대상 : 현재 초6, 중1
- 문의 : (054)338-0530
-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gyo6.net/sanjayeon>) 참고

**제3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 때 : 12.15(주일) 10:30~17:00
- 곳 : 부산가정성당(초량동)
- 대상 : 혼인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신자로 34~46세(1990~1978년생) 미혼자, 제2회 혼인 성소 발견하기(2023년) 참가자 배제
- 접수 : 선착순 남녀 각 30명
- 문의 :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1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5 전기)**

- 모집전공 : 생명윤리학(입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 석사과정 / 입학전형 : 12.2(월) 14:00
- 원서접수 : 11.4(월)~15(금) 17:00
- 문의 : (02)3147-8156(대학원교학팀) (02)3147-8664(조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11.11(월)~19(화) 17:00 방문 및 우편접수
- 모집전공 :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 /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 카리타스학
- 특전 : 직장인, 수도자 등 장학 혜택 다수
- 문의 : (043)270-0131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 대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 신청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상시 모집 신설강의, 수료이벤트, 다양한 무료컨텐츠 제공
- 문의 : (031)360-7635, 010-7470-7966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 곳 : 성이시돌 피정의집 (통합사목센터)
- 때 : 11.1~3, 11.15~17
- 대상 : 개인, 단체 (본당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 문의·접수 : 010-9670-9775, 010-2231-2074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 문의 : (02)2274-1843,4 [www.cdcc.co.kr](http://www.cdcc.co.kr)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래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수도회 및 피정**

**예수수도회 영성대학 신입생 모집(목요반)**

- 대상 : 성경공부 이수자로 이나시오 영성에 관심있는 분
- 기간 : 3년 과정 (오전/저녁반)
- 곳 : 예수수도회교육센터(성모학교내)
- 문의 : 010-5969-4714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비밀독서단 명작통독(온라인) 모집**

- 모임기간 : 11.4~16(2주간)
- 신청비 : 25,000원(책,배송료포함)
- 문의 : 바로로팔서원 (042)254-3089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 모임**

- 때 : 10.27(주일) 09:00
- 곳 : 서울 분원 (서울 장충동)
- 문의 : 010-8353-2323(!문자 문의!)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모임**

- 때 : 10.27(주일) 14:0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4층
- 대상 : 만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누구나
- 문의 :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중입니다.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성소부 문의 : 010-5195-3217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자연순례 : 11.7~9, 11.21~23, 12.1~3, 12.6~8, 12.14~16, 12.29~1.1(연말연시, 한라산)
- 추라도포함 : 11.16~19, 11.25~28, 2025.3.13~16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성지순례(추라도포함) : 11.18~21, 11.24~27
- 생태순례 : 12.7~9, 12.13~15, 2025.1.17~19(한라산)
- 연말연시 : 12.30~2025.1.2(해님이, 해돋이, 한라산)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 때 : 10.26(토) 14:00~27(주일) 14:00
- 회비 : 2만원(청소년 무료)
- 강사 : 김완식 요셉, 김현우 바오로 신부
- 곳 : 초정성령회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64.3°C

총 모금 643,094,051원

[10.1~6 모금액] 14,903,010원  
본당 13,474,810원 / 개인·기관·행사 1,428,200원

<p><b>에스티 피부과</b> (전 을지외대 교수 / 현 충남외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p>	<p><b>늘봄약국</b>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사) 약사 김주현(로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문 앞 T. (042)222-0662</p>	<p><b>정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의과 협진)</b> 병원장 정주영(요한) / 김서연(프란치스카) 중풍재활 / 수술 후 재활 / 교통사고 / 도수치료 365일 진료,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타임월드 도보 1분 T. (042)486-6000</p>
<p><b>대형환경(주)</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울리오</p>	<p><b>플랜트 치과</b>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홀플러스 옆</p>	<p><b>가톨릭신문 성지순례</b> 1/13 피정 성모발현지 475만원 1/26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60만원 3/1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a href="http://www.cttour.org">www.cttour.org</a></p>

## 찬미가(Hymnus), 여섯 번째 이야기 -성모님께 대한 찬미가인 Ave maris stella(바다의 별)

찬미가 여섯 번째 시간은 성모님께 대한 찬미가인 **Ave maris stella(바다의 별)**입니다. 앞서 성모 찬송은 따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Ave maris stella(바다의 별)**는 전례 시기와 관계없이 바치는 공통적인 찬미가입니다. '바다의 별'이란 성모님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칭호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문은 대략 8~9세기경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종종 여행자를 위한 기도에도 봉헌됩니다. **Ave maris stella(바다의 별)**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하여 팔레스트리나, 뒤파이, 몬테베르디, 드보르작, 그리그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 수 세기에 걸쳐 작곡되었습니다. 찬미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Ave, maris stella,  
Dei mater alma,  
atque semper virgo,  
Felix cæli porta.

바다의 별이여 기뻐하소서,  
지존의 영광된 어머니시여,  
영원한 동정의 화관인 당신  
하늘로 오르는 문이오이다.

Sumens illud «Ave»  
Gabrielis ore,  
funda nos in pace,  
mutans Evæ nomen.

가브리엘 정중한 인사의 말씀,  
복되다 하심을 받으신 이여,  
하와의 이름을 갈아 바꾸어,  
우리에게 평화를 얻어 주소서.

Solve vincla reis,  
profer lumen cæcis,  
mala nostra pelle,  
bona cuncta posce.

성모여, 죄악의 질곡 끊으사,  
불쌍한 소경들 눈뜨게 하고,  
나약한 우리가 악을 물리쳐  
선한 일 행하게 빌어 주소서.

Monstra te esse matrem,  
sumat per te precem  
qui pro nobis natus  
tulit esse tuus.

만인의 자모여 전구자시니,  
애절한 우리 청 전달하소서.  
구세주 당신을 모친 삼으사  
세상을 구하러 오셨나이다.

Virgo singularis,  
inter omnes mitis,  
nos culpis solutos  
mites fac et castos.

꽃스런 고음을 뉘게 비하랴.  
절세의 가인인 동정녀시여,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고서  
어질고 깨끗함 입게 하소서.

Vitam præsta puram,  
iter para tutum,  
ut videntes Jesum  
semper collætetur.

성모여 우리도 정덕 지니어  
바르고 고운 길 걷게 하시고,  
아드님 예수를 마주 뵈는 날,  
무궁한 복락을 얻게 하소서.

Sit laus Deo Patri,  
summo Christo decus,  
Spiritu Sancto  
tribus honor unus. Amen.

하느님 아버지 높이 기리며,  
온 누리 성자를 찬미하오니,  
성신과 더불어 삼위일체여,  
누리실 그 영광 영원하셔라. 아멘.

신혜순 데레사 연주학박사(지휘)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98차 전교 주일 담화

2024년 10월 20일

“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마태 22,9 참조)



담화 전문 보기

### 유성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10월 6일(주일) 유성성당(주임 윤병권 신부)에서 본당 교우 76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 천안월랑성당 성전 봉헌식



천안월랑성당(주임 안성진 신부)은 10월 5일(토)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새 성당을 봉헌했다.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64-33에 위치한 새 성당은 건축면적 798.13㎡, 연면적 1,289.24㎡ 규모로 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천안성정동성당에서 2015년 1월 분리된 천안월랑성당은 2016년 6월 25일 건축공사를 시작해 2018년 3월 3일 성당 입당 미사를 봉헌했다.

### 장항본당 세례식



장항본당(주임 허병도 신부)에서 9월 29일(주일) 10명의 신자들의 세례식이 있었다.

부부, 남매, 외갓교우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세례로 새로 태어난 신자와 94세의 어르신이 먼저 떠난 배우자와 천국에서 만난다는 희망으로 새로이 나신 경사가 있었다.

### 판암동본당 꾸리아 성지순례



판암동본당(주임 이상욱 신부) 은총의 모후 꾸리아는 10월 3일(목) 레지오 마리아 야외행사로 단원 126명이 가톨릭 목포성지(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발상지인

목포 산정동성당,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을 순례했다.

### 가정사목부 제2차 미혼 직장인 청년 성지순례



가정사목부(전담 이영일 신부)는 9월 28일(토) 공주 황새바위성지에서 미혼 직장인 청년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미혼 직장인 청년들은 성지에서 미사와 순례를 그리고 공주중동성당에서 강의도 들으며, 예수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하루를 보냈다.

### 제31회 교리교사의 날



청소년국(국장 조수환 신부)은 10월 9일(수) 솔피성지에서 각 본당 주일학교 담당 신부와 수도자, 교리교사 등 4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31회 교리교사의 날’을 개최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의 주례로 축하 미사가 봉헌되었고, 미사 중에 81명에 대한 근속상 수여식이 있었다. 미사 후 저녁식사와 함께 J-fam이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교리교사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 장애인 사목부 성지순례



장애인사목부(전담 김준영 신부)는 10월 3일(목) 시각, 지체, 농아인, 봉사자 총 75 명이 괴산 연풍성지로 순례를 다녀왔다.

### 천안서부지구 청년연합회 청년 연합캠프



천안서부지구 청년 연합회(담당 이승민 신부)는 9월 28(토)부터 29일(주일) 공주 소래이 마을에서 청년 연합캠프를 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루카 7,14)라는 주제 성구로 모인 청년들은 단합 프로그램, 미사와 성시간, 아가페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공주교동본당 전신자 성지순례



공주교동본당(주임 여준구 신부)은 10월 6일(주일) “전신자 성지순례”를 천안 성거산성지로 다녀왔다.

아이들과 어르신까지 전신자가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 목동본당 전신자 성지순례



목동본당(주임 김현홍 신부)은 10월 6일(주일) 본당의 날을 맞아 천호성지로 전신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병인박해에 순교한 성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활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